

문법 교육의 현실에 대한 성찰*

왕문용(강원대학교)

차 례

- I. 서론
- II. 문법 교육의 현실
- III. 문법 교육의 현실에 대한 반성
- IV. 결론

I. 서론

학교 현장에서 문법 교육이 시작된 지도 100 년이 넘었고 해방 후에 본격적인 문법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지도 반세기가 넘어섰다. 그 동안의 문법 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나 일단 김민수(1973)에서는 1960 년대 초반까지의 문법교육을 성립기(-1930), 반성기(1930-1946), 부흥기(1946-)로 구분하여 논의한 적이 있고 왕문용(2005)에서는 성립기(대한제국 - 대한민국 건국기), 발전기(1차 - 3차 교육과정 시기), 성숙기(4차 - 7차 교육과정 시기)처럼 정리하여 논의한 적이 있다.¹⁾ 문법 교육 연구도 이에 병행하여 발전하였는데 이관규(2005)에서는 이를 발아기(1985-1921), 모색기(1921-1955), 성립기(1955-1991), 발전기(1991-현재)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박덕유(2005)에서는 문법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 이 논문은 2009년도 강원대학교 학술 연구 조성비로 연구하였음.

1) 여기에서는 4차 교육과정 시기를 문법 교육의 성숙기의 시작으로 잡은 주요 이유를 국정 통일 문법 교과서 편찬에 두고 있다.

바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도 밝혀졌듯이 문법 교육의 실상과 반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민현식(2006, 2007)에는 문법 교육의 실상과 과제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고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남가영(2007)에 소개되어 있다. 문법 교육의 현장 연구에 대해서는 홍정원(2008)에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었다. 따라서 문법 교육의 현실과 그에 대한 반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새삼스럽고 진부한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법 영역의 내용이 대폭 바뀌었고 문법 교육의 방향도 많이 달라졌다. 또 새로운 교과서가 편찬되는 와중에 있어 이 시기가 더 지나면 지금의 문법 교육이 고착화 되고 설사 현행 문법 교육의 방향이나 내용에 잘못이 있더라도 바로 잡기가 힘들 것이다. 향후 문법 교육의 방향과 위상 문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와중에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문법 교육에 대해 고찰하고 성찰해 보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문법 교육은 그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4차 교육과정 시기에 국어과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이미 ‘성숙기’의 정점을 한참 지나 내리막으로 들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문법 교육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독립적인 문법 교육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인 논의의 한 예라면 국어과 교육에서 문법 영역을 설정하지 않으려는 논의나 국어 교과서에서 형식적으로 문법 내용을 다루려는 시도가 외부적인 시도의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가 발전기로 접어들면서 왕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현장에서의 문법 교육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국어 교육의 영역 구분을, 문법과 문학 영역을 제외한 4 영역으로 구분하려는 초안도 마련되었었다. 이에 대한 여러 논의를 거쳐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2006 년에 영어 수학보다는

1 년 늦게 마련되었고 그에 따른 교과서가 현재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문법 교육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여전히 문법 교육의 당위성이나 위상이나 위기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교육과정과 함께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찬된 교과서를 검토하여 보면 현재의 문법 교육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특징을 살피고 이에 따라 검인정으로 처음 시도되는 국어과 교과서에 실현된 문법 교육의 내용을 검토하여 문법 교육의 현실을 성찰해 보기로 한다. 현재 이전의 문법 교육을 국정 교과서시대의 문법 교육이라면 이 시대는 단일한 교과서와 교육과정으로 문법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인정 교과서 시대로 접어들어서 1학년의 경우 23 종의 교과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는 초유의 시대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법 교육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나 교과서를 선택하는 교사들의 경향에 의해서 문법 교육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²⁾

검인정 교과서가 23종이나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10 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국어’와 ‘생활 국어’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1. 김대형 외(천재교육), 국어와 생활국어
2. 박영목 외(천재교육), 국어와 생활국어
3. 김종철 외(디딤돌), 국어와 생활국어
4. 이삼형 외(디딤돌), 국어와 생활국어
5. 오세영 외(해냄), 국어와 생활국어
6. 이승원 외(신사고), 국어와 생활국어

2)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문법을 중요시하지 않는 교과서 집필자에 의해 교과서에서 문법 교육의 내용은 부실화되고 이런 내용을 현장에서 많이 선택하므로 문법 교육은 더욱 위축되는 방향이 틀림없이 가시화되리라 생각한다.

7. 윤여탁 외(미래 앤 컬처 그룹), 국어와 생활국어
8. 노미숙 외(천재교육), 국어와 생활국어
9. 권영민 외(새롬교육), 국어와 생활국어
10. 윤희원 외(금성), 국어와 생활국어

II. 문법 교육의 현실

1. ‘문법’ 영역 교육과정

문법 영역 교육과정은 제 4차 교육과정 시기에 ‘언어’ 영역으로 처음 자리 잡기 시작하여 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국어 지식’에 이르기까지, 국어 교육과정의 한 영역을 차지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의 특징은 7차 교육과정의 그것과 비교하여도 분명히 드러난다. 7차 교육과정 시기의 문법 교육도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마련되었던 그전 시기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10학년 체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 시기와는 많이 달라졌다.³⁾ 7차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관규(200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신명선(2008), 최미숙 외(2009) 등으로 미루고 문법 교육의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7차와 개정 교육과정을 개괄적으로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3) 10학년 체제는 학교 단계와 교육과정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와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학교에서 다시 확인하며 심화시키고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다시 심화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법 영역은 더구나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하여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1> 7차 교육과정 중등학교의 문법 영역 내용 요소 체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국어의 본질		(1)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 알기	(1)언어의 사회성 알기 (2)언어의 역사성 알기	(1)남북한 언어의 차이 알기	(1)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 알기 (2)국어의 개괄적인 역사를 알기
국어의 이해와 탐구	음운	(2)음절의 개념 알기	(3)국어의 음운 체계 알기	(2)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 알기	
	낱말	(3)형태소와 낱말의 개념 알기	(4)국어의 조어법 알기	(3)품사의 분류 기준과 각 품사의 특성 알기	
	어휘	4)은어, 전문어, 속어, 비어, 유행어의 개념 알기	(5)관용어의 개념 알기		
	문장			(4)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 구성 원리 알기	(3)문법 요소들의 기능 알기 (4)문장의 짜임새 알기
	의미	(5)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개념 알기		(5)문장의 구조로 말미암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현상 알기	
	담화	(6)담화의 구성 알기	(6)발화의 기능 알기		(5)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 알기
국어 규범과 적용				(6)맞춤법에 맞게 국어 사용하기	(6)문법에 맞게 국어 사용하기
태도		(7)국어를 순화하려는 태도	(7)국어 사용에서 발견되는 문물 파악하려는 태도	(7)맞춤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	(7)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 (8)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

7차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체계화 하는 방법은 그 전 시기의 교육과정과 동일하였다. 국어학의 학문적인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의 규범과 적용’을 기준으로 체계화하였는데 ‘국어의 이해와 탐구’에 ‘음운, 낱말, 어휘, 문장, 의미, 담화’를 축으로 학년별 내용을 배열하고 있다.

<표 1>에서 빈칸을 살펴보면 ‘국어의 본질’과 ‘태도’를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은 둘에서 세 항목을 배당하여 항목별로 고르게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문 체계를 고려한 체계이었다. 이에 비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비교를 위해 7차 과정의 틀에 넣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내용 요소 체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국어 학 일반	(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1) 언어의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창조성 등을 이해한다. (5) 한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이해한다.	(1) 국어의 역사를 이해한다. (5) 한글의 창제원리와 한글의 독창성을 안다.
음운			(2) 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한다.	(2) 국어의 음운 규칙을 안다.
낱말	(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3)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어휘	(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2) 여러 종류의 어휘를 비교하고 그 사용 양상을 설명한다.		
문장	(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3)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	
의미		(4)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이해한다.		
담화	(5) 지시어가 글의 구조	(5) 담화나 글의 의미	(4) 담화 또는 글 구성의	(3) 장면에 따른 표

	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해석에 상황 맥락이 관여함을 이해한다.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현 방식을 안다. (5)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 알기
국어 규범 과 적용				(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한다.

<표 1>과 비교하여 <표 2>의 ‘음운, 낱말, 어휘, 문장, 담화’와 ‘국어 규범’ 항목은 각각 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담화’ 항목은 빈칸이 없지만 ‘의미’와 ‘규범’ 항목은 하나의 내용 요소만 설정되어 있어 차이가 크다.

<표 1>과 <표 2>를 대조할 때에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장’ 영역의 차이가 크다. 항목 수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도 많이 다르다.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 피동이 달리 사용됨을 알기’,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하기’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요소는 통사론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7차 교육과정의 ‘문장 구성의 특성과 문장 구성 원리 알기’, ‘문법 요소들의 기능 알기’, ‘문장의 짜임새 알기’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담화 항목’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영역은 20 세기 후반 발전한 화용론의 영향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도 그전 시기보다 대폭 강화되었으나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 빈칸이 없도록 많은 내용 요소를 배열하고 있다.

셋째, 규범 내용이 약화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등학교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만 제시하고 있다. 맞춤법과 표준어 내용은 내용 요소에 없다.

다섯째, 항목의 편중 문제는 앞서 밝혔지만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목 내에서도 편중이 심하다. ‘문장’을 예로 들면 문법론의 중요 논의 사항인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서법’ 등 많은 문법 요소의 기능 중에서 중등학교에서는 ‘사동, 피동’만 7학년에 선정 배열되었다.⁴⁾

이것은 글이나 담화 같은 언어 사용의 실제를 우선시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내용 체계에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는데 국어학의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내용 선정의 당위성에서 왜 그 요소가 선정되었는지 필연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게 된다.

이런 변동은 교육과정에서 ‘표’로 체계화한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곧 드러난다. <표 3>이 그것이다.

<표 3>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비교
 • 7차 교육과정

· 국어의 본질 -언어의 특성 -국어의 특질 -국어의 변천	· 국어의 이해와 탐구 -음운 -낱말 -어휘 -문장 -의미 -담화	· 국어에 대한 태도 -동기 -흥미 -습관 -가치
· 국어의 규범과 적용 -표준어와 표준 발음 -맞춤법 -문법		

• 개정 교육과정

국어 사용의 실제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글
지식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질 국어의 역사 국어의 규범		탐구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	
맥락 국어의 의식 국어 생활 문화			

- 4) 물론 초등학교 4학년에 ‘높임법’, 5학년에 ‘시간 표현’ 등을 배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학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글이나 담화 같은 언어 사용의 실재를 우선시하고 ‘맥락’을 중시하여 언어 사용의 실재나 ‘국어의식, 국어 생활 문화’ 같은 맥락에 바탕을 두고 있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문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문법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1)과 같다.

(1) 고등학교 문법 과목의 내용 체계

ㄱ. 7차 교육과정

- (가) 언어와 국어 : 언어의 본질, 언어와 인간, 국어와 국어문화
- (나) 국어 알기 : 음운의 체계와 변동, 단어의 갈래와 형성, 국어의 어휘, 문장 구성 요소와 짜임새, 단어의 의미, 문장과 담화
- (다) 국어 가꾸기 : 국어사용의 규범, 정확한 국어 생활, 국어 사랑의 태도

ㄴ. 개정 교육과정

- (가) 국어와 삶 언어의 본질
국어의 구조
- (나) 국어와 삶 국어와 규범
국어와 생활(일상 언어, 예술언어, 매체언어)
- (다) 국어와 열 국어의 변천
국어의 미래(통일 시대의 국어 교육, 세계 속의 국어, 국어와 인접 분야)

(1)에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에 대한 구조적 지식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시기의 (가)(나)의 내용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합쳐져서 ‘(가) 국어와 삶’으로 축소되었다. ‘국어와 삶’에서 규범적 언어생활 이외에도 일상 언어, 예술 언어, 매체 언어, 전문어 등 다양한 언어 사용 양상을 제시하였는데 문법에서 맥락, 곧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경험을 시키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어와 열’은 전통적인 학교 문법의 내용에서 벗어난 확대된 내용이다. 이런 ‘문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명한다면 ‘문법’이라

기보다는 ‘국어 생활’이라 해야 할 것이다.

2.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교육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 간행되는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간행되기 때문에 2009 년 말 현재, 1학년 교과서만 나와 있다. 우리는 전반적인 문법 영역의 단원 구성 경향을 살피기 위하여 ‘국어’와 ‘생활 국어’로 나누어 단원 구성 방식에 한하여 간략히 살피기로 한다. ‘국어’와 ‘생활 국어’로 나누면 어디에서 다루었는지 드러나고 단원명을 살피면 전체의 단원 구성을 짐작할 수 있다. 단원의 구성 방식에서는 단원을 독립적으로 다루었는지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영역간 통합으로 다루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7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이 다섯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내용 요소에 대해 어떻게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지 각각 살필 것이다.⁵⁾

<표 4> 성취기준 1(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

교재	구분	단원명	내용 구성 방식
1	국어	매체와 함께(1)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 (2) 아름다운 사람	영역간 통합, 독립 대단원 ⁶⁾
	생국	다루지 않음 ⁷⁾	
2	국어	매체와의 만남 (1) 매체와 언어 (2) 광고 (3) 영화	독립 소단원
	생국	다루지 않음 ⁸⁾	
3	국어	다매체 시대의 언어생활 (1) 다양한 매체 언어 (2) 광고 어떻게 볼까	독립 소단원, 별도의 통합 활동
	생국	다매체 시대의 언어생활 (1) 다양한 매체 언어 사용하기 (2) 광고의 설득 방법 파악하기	독립 소단원, 별도의 통합 활동

5) 교과서의 단원 구성에 대한 기초 조사는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의 제민경 선생과 이관희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4	국어	다양한 매체, 다양한 언어 (1) 착한 소비 (2) 팬클럽 회원인데요	영역간 통합
	생국	다양한 매체, 다양한 언어 (1) 매체 언어의 이해 (2) 인터넷 토론	독립 소단원
5	국어	생활과 매체 (1) 다양한 매체와 언어 (2) 광고와 설득 (3) 설명문 쓰기	독립 소단원
	생국	생활과 매체 (1) 다양한 매체와 언어 (2) 광고와 설득 (3) 설명문 쓰기	독립 소단원
6	국어	매체와 언어생활 (1) 언어는 매체를 타고 (2) 매체에 담긴 언어 특성 (3) 설득의 언어, 광고	독립 소단원, 소단원 간의 연계
	생국	다루지 않음	
7	국어	매체와 함께하는 언어생활 (1) 매체와 언어 (2) 디지털 시대의 시 즐기기	독립 소단원, 소단원 간의 연계
	생국	매체와 함께하는 언어생활 (1) 매체 언어의 특징 (2) 통일성 있게 설명문 쓰기	독립 소단원, 소단원 간의 연계
8	국어	세상이 말을 걸다 (1) 광고와 설득(듣기) (2) 인터넷 토론(말하기) (3) 매체 언어	독립 소단원, 소단원 간의 연계
	생국	상동	독립 소단원, 소단원 간의 연계
9	국어	말도 옷을 입는다 (1) 같은 말, 다른 표현 (2) 시는 노래가 되어	독립 소단원
	생국	상동	독립 소단원
10	국어	매체와 언어생활 (1) 매체 언어 살펴보기 (2) 매체에 따른 언어 사용	독립 대단원
	생국	소단원 목차 없음	독립 대단원

이 성취 기준은 언어의 기능, 매체 언어 등을 다루는 내용으로 하나의 대단원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다. ‘국어’에서만 다루고 ‘생활 국어’에서는 다루지 않은 교과서가 3종이고 ‘생활 국어’에서 독립 소단원으로 다루고 ‘국어’에서 영역간 통합 구성으로 다룬 것이 1종이었다. ‘교과서 1’은 ‘국어’에서만 다루면

- 6) 문법 내용을 읽기 자료 앞에 간략히 제시하는 식으로 소단원을 구성하고 있어 영역간 통합 구성으로 대단원을 구성함.
- 7) 생활국어 3단원 ‘매체와 함께’에서 듣기(2)의 성취기준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국어’에서 배운 성취기준을 다시 떠올려보는 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
- 8) 대단원명도 ‘인터넷 토의하기’로 ‘국어’와는 다름. 이 교과서는 ‘생활 국어’ 대단원명이 ‘국어’와 다르게 편성됨.

서도 매우 간략하게 문법 내용을 앞에 제시하는 영역간 통합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독립 대단원으로 다룬 교과서가 2, ‘국어’나 ‘생활 국어’에서 함께 독립 소단원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5 종이었다.

<표 5> 성취기준 2(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

교재	구분	단원명	내용 구성 방식
1	국어	다루지 않음	
	생국	말의 묘미 (1) 재미있는 말과 언어생활, (2) 재미있는 말의 발상 파악하기, (3) 재미있는 말에 적절히 반응하기	영역간 통합 ⁹⁾ (문법+듣기)
2	국어	선인들의 삶과 언어 (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 밥타령, (3) 관용 표현의 이해 - 속담에 대하여	독립 소단원 ¹⁰⁾
	생국	다루지 않음	
3	국어	공감과 표현 (1)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 (2) 멀리 있는 아들에게, (3) 우리말의 관용 표현	독립 소단원 별도의 통합 활동
	생국	공감과 표현 (1) 호소력 있게 말하기, (2) 격려와 위로의 글 쓰기, (3) 관용 표현 활용하기	상동
4	국어	의도와 표현 (1) 귀에 쏙쏙 별난 말들, (2)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독립 소단원(문법만으로 대단원 구성)
	생국	의도와 표현 (1)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 (2) 사동 · 피동 표현의 개념과 효과	독립 소단원(문법만으로 대단원 구성)
5	국어	아름다운 우리말 (1)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 (2) 관용 표현 이해하기	독립 소단원, 별도의 통합 활동 ¹¹⁾
	생국	아름다운 우리말 (1)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 (2) 관용 표현 이해하기	
6	국어	다루지 않음	
	생국	내 마음, 네 마음 (1) 공감과 설득의 말하기, (2) 신기한 관용 표현의 세계	독립 소단원, 별도의 통합 활동
7	국어	삶의 깨달음 나누기 (1)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2) 소음 공해, (3) 실수	영역간 통합 ¹²⁾

	생국	삶의 깨달음 나누기 (1) 생활 체험과 갈등 표현, (2) 상황에 맞는 관용 표현 활용	독립 소단원
8	국어	역사, 문화, 그리고 우리 (1) 삶과 문학, (2) 설명문 쓰기) (3) 관용 표현	독립 소단원
	생국	상동	상동
9	국어	삶을 넉넉하게 하는 말 (1) 재미있는 이야기, 즐거운 세상, (2) 언어생활과 관용 표현	독립 소단원
	생국	상동	독립 소단원
10	국어	시대와 문학 (1) 역사적 상황과 인물의 삶, (2) 홍길동전 (3) 명혜	영역 간 통합(문학+문법) ¹³⁾
	생국	소단원 목차 없음.	상동

전체적으로 생활국어에서만 다룬 교과서가 2종인데 ‘교과서1’은 영역간 통합으로 단원을 구성하여 제대로 관용 표현을 다루지 않고 있다. ‘국어’에서만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역시 2종으로 ‘교과서2’는 관용 표현의 일부 내용인 속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생활 국어’에서 주로 다루고 ‘국어’에서는 영역간 통합으로 구성한 것이 1종이었고, 교과서 10은 영역간 통합으로 전체 단원을 구성하여 읽기 학습을 하면서 관용 표현을 일부 다루고 있다.

내용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독립 소단원으로 다룬 것이 7, ‘생활 국어’에서 독립 소단원으로 다루고 ‘국어’에서 영역간 통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1, 단원 전체를 영역간 통합 구성으로 한 것이 1종, ‘생활 국어’에서만 다루고 그것도 영역간 통합으로 편성한 것이 1종이었다.

9) 소단원 (2)의 하나의 활동에서 관용어를 사용하는 효과를 다루고 있어 영역간 통합이라 하기도 어려움.

10) 속담에 대한 설명문 앞에 간략히 다루고 있어 주로 속담에 대한 내용임.

11) ‘아우르기’ 코너.

12) 수필 읽기에 간략히 덧붙임.

13) 문학 작품 속에서 관용 표현을 일부 다루고 있음.

<표 6> 성취기준 3(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

교재	구분	단원명	내용 구성 방식
1	국어	우리말 들여다보기 (1) 단어, 해쳐 모여!, (2) 이름 안에 열쇠 있다!	독립 대단원
	생국	다루지 않음	
2	국어	우리말의 탐구 (1) 품사의 분류와 특성, (2) 지시어의 개념과 역할	독립 소단원(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함께 대단원 구성)
	생국	다루지 않음	
3	국어	단어의 세계 (1) 품사란 무엇일까, (2) 지시어의 세계	독립 소단원(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함께 대단원 구성), 별도의 통합 활동
	생국	단어의 세계 (1) 품사 분류하기, (2) 지시어의 역할 분석하기	상동
4	국어	품사란 무엇인가 (1) 품사 나라 벼슬 잔치, (2) 품사 돋보기	독립 대단원
	생국	품사란 무엇인가 (1) 분류의 기준, (2) 품사 찾기	상동
5	국어	글과 단어의 이해 (1) 글의 다양한 이해, (2) 품사의 이해	독립 소단원 별도의 통합 활동 구성
	생국	글과 단어의 이해 (1) 글의 다양한 이해, (2) 품사의 이해	독립 소단원
6	국어	언어와의 만남 (1) 품사 알기, (2) 사동·피동 표현이 만드는 세계	독립 소단원(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함께 대단원 구성)
	생국	다루지 않음	
7	국어	재미있는 우리말, (1) 우리말 품사 나누기, (2) 우리말 품사의 특성, (3) 우리말의 재미있는 표현	독립 소단원
	생국	재미있는 우리말 (1) 품사 분류와 국어생활, (2) 생활 속의 재담	독립 소단원
8	국어	읽기의 달인 (1) 읽기란 무엇인가(읽기), (2) 같은 글, 다르게 읽기 (읽기), (3) 품사(문법)	독립 소단원
	생국	상동	상동
9	국어	품사, 단어를 나누다 (1) 단어 이야기	독립 대단원 ¹⁴⁾
	생국	상동	독립 대단원
10	국어	문법과 표현 (1) 품사의 분류와 특성, (2)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독립 소단원(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함께 대단원 구성)
	생국	소단원 목차 없음.	영역간 통합

14) 소단원 하나가 하나의 대단원을 이루고 있으므로 하나의 대단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국어’에서 단원 편성을 하지 않은 교과서는 없었다. ‘국어’에만 단원 편성을 하고 ‘생활 국어’에서는 다루지 않은 교과서가 3종 있었다. 다른 문법 요소와는 달리 비교적 충실하게 단원 구성을 하고 있었다.

내용 구성 방식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반영되어 독립 대단원으로 다룬 것이 3, 지시어와 함께 문법 영역으로 독립 대단원을 다룬 것이 1, 독립 소단원으로 구성한 것이 6종이 있었다. 이 중 두 교과서는 독립 소단원으로 다루면서 별도의 통합 활동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다른 내용 요소와 달리 품사 문제는 독립 대단원으로 다룬 교과서가 많았고 영역간 통합 구성으로만 편성한 교과서는 없었다.

<표 7> 성취기준4(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 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알기)

교재	구분	단원명	내용 구성 방식
1	국어	다루지 않음	
	생국	우리말 들여다보기 (1) 지시어의 힘, (2) 사동 표현과 표현 의도, (3) 피동 표현과 표현 의도	독립 소단원(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함께 대단원 구성)
2	국어	언어의 세계 (1) 공감하며 읽기, (2) 맥락에 맞게 읽기, (3)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독립 소단원
	생국	다루지 않음	
3	국어	다양한 말하기 (1) 상대를 고려한 대화, (2) 사동과 피동 표현	독립 소단원, 별도의 통합 활동
	생국	다양한 말하기 (1) 상대를 고려하여 말하기, (2) 사동 · 피동 표현 이해하기	상동
4	국어	의도와 표현 (1) 귀에 쏙쏙 별난 말들, (2)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독립 소단원(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함께 대단원 구성)
	생국	상동	상동
5	국어	상황과 표현 (1) 상대를 고려하여 대화하기, (2)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독립 소단원, 별도의 통합 활동 구성
	생국	상동	독립 소단원

6	국어	언어와의 만남 (1) 품사 알기, (2) 사동·피동 표현이 만드 는 세계	독립 소단원(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함께 대단원 구성)
	생국	다루지 않음	
7	국어	인간의 심리와 갈등 이해 (1) 나비를 잡는 아버지, (2) 노 래 주머니	영역간 통합 ¹⁵⁾
	생국	인간의 심리와 갈등 이해 (1) 인물의 심리와 갈등, (2) 상 대를 고려하여 말하기, (3) 의도에 따른 사동·피동 표현	독립 소단원
8	국어	더불어 이야기하자 (1) 재미있는 이야기(듣기), (2) 다양한 대화(말하기), (3) 사동과 피동(문법)	독립 소단원
	생국	상동	상동
9	국어	사람을 이어 주는 말과 글 (1) 효과적인 대화, (2) 격려와 위로, 사동과 피동	영역간 통합 (말하기+문법)
	생국	사람을 이어 주는 말과 글 (1) 효과적인 대화, (2) 격려와 위로, (3) 사동과 피동	독립 소단원
10	국어	문법과 표현 (1) 품사의 분류와 특성, (2) 사동 표현과 피 동 표현	독립 소단원(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함께 대단원 구성)
	생국	소단원 목차 없음.	영역간 통합

이 요소는 ‘국어’에서만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2종, ‘생활 국어’에서만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1종 있었다. 한 종류는 ‘생활 국어’에서 독립 소단원으로 다루고 ‘국어’에서는 별도의 통합 활동으로 구성하여 간략하게 다루고 있었다.

내용 구성 방식으로는 전부 다 독립 소단원으로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 3 종류는 ‘국어’나 ‘생활 국어’에서는 통합 학습 활동으로 다루고 있었다. 4종류의 교과서가 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합하여 문법만으로 대단원을 구성하고 있었다.

<표 8> 성취기준 5(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15) ‘나비를 잡는 아버지’에 학습 활동으로 간략히 덧붙임.

교재	구분	단원명	내용 구성 방식
1	국어	다루지 않음	
	생국	우리말 들여다보기 (1) 지시어의 힘, (2) 사동 표현과 표현 의도, (3) 피동 표현과 표현 의도	독립 소단원(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함께 대단원 구성)
2	국어	우리말의 탐구 (1) 품사의 분류와 특성, (2) 지시어의 개념과 역할	독립 소단원(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함께 대단원 구성)
	생국	없음	
3	국어	단어의 세계 (1) 품사란 무엇일까, (2) 지시어의 세계	독립 소단원(다른 문법 성취기준과 함께 대단원 구성), 별도의 통합 활동
	생국	단어의 세계 (1) 품사 분류하기, (2) 지시어의 역할 분석하기	상동
4	국어	읽기가 힘이다 (1) 읽기란 무엇인가, (2) 먹어서 죽는다, (3) 은행문은 왜 안쪽으로 열릴까	영역간 통합 ¹⁶⁾
	생국	읽기가 힘이다 (1) 읽기의 개념과 글의 특성, (2) 읽기의 원리와 독자의 역할, (3) 지시어와 글의 짜임	독립 소단원
5	국어	만남과 대화 (1) 면담하기, (2) 지시어 이해하기	독립 소단원 별도의 통합 활동 구성
	생국	상동	독립 소단원
6	국어	다루지 않음	
	생국	세상을 담은 이야기 (1) 영화 ‘집으로’ 이야기, (2) 지시어와 의사소통	독립 소단원, 소단원 간의 연계
7	국어	말과 글의 이해 (1) 읽기란 무엇인가, (2) 역사 수업을 듣다	영역간 통합 ¹⁷⁾
	생국	말과 글의 이해 (1) 효과적인 읽기, (2) 지시어와 글의 구조, (3) 수업 듣기와 메모	독립 소단원
8	국어	공부의 비법 (1) 수업과 메모, (2) 보고서 쓰기, (3) 지시어	독립 소단원, 소단원 간의 연계

	생국	상동	상동
9	국어	훌륭한 독자가 되어 보자 (1) 읽기의 특성과 방법, (2) 글 속의 지시어	독립 소단원
	생국	상동	상동
10	국어	같은 글 다른 생각 (1) 읽기의 세계, (2) 집을 수리하고, (3) 먹어서 죽는다	영역간 통합 ¹⁸⁾
	생국	소단원 목차 없음.	상동

지시어는 담화표지로 주목받는 내용인데 ‘생활 국어’에서만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2, ‘국어’에서만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1종 있었다.

9 종류가 독립 소단원 구성으로 단원을 편성하였는데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만 편성하고 있는 것이 위와 같이 3종 있었다. 그 외 1종은 읽기 제제를 하면서 ‘지시어’를 학습 하도록 영역간 통합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었다. ‘생활 국어’에서 독립 소단원으로 다루고 ‘국어’에서는 별도의 통합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2종 있었다.

다른 문법 내용과 합쳐 문법 영역만으로 독립 대단원으로 다룬 것이 3종 있었다.

전체적으로 ‘국어’나 ‘생활 국어’ 중의 어느 하나에서만 문법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10종 중 3종으로 3할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세 종류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교과서 1’은 다섯 가지 성취 기준 중에서 ‘국어’에 2, ‘생활 국어’에 3 개의 성취기준을 다루었고 ‘교과서2’는 모두 ‘국어’에서 다루고 있다. ‘교과서 6’은 ‘국어’에서 3, ‘생활 국어’에서 2 개의 요소를 다루고 있다. ‘생활 국어’에서만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

16) 소단원 (3)의 ‘다가서기’와 학습 활동에서 간단히 다룸.

17) ‘읽기란 무엇인가’에 학습 활동으로 간략히 덧붙임.

18) 읽기 제제 속에서 지시어를 다룸

어질지 의심스럽다.

대부분 다른 영역의 학습 내용과 같이 대단원을 구성하더라도 독립 소단원으로 편성하고 있다.

Ⅲ. 문법 교육의 현실에 대한 반성

문법 교육의 현실에 대한 반성은 민현식(2007)에서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단계별 위계화 전략, 전통의 부재 문제, 규범 교육의 부재 문제, 기능 교육과의 연계 부재 문제, 실용적 평가의 부재 문제 등 여러 면에서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문제점의 대부분은 개정 교육과정에도 적용된다. 위계문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을 들 수 있다. 이 내용은 문법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식이 전제되어야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고등학교 10학년에 다른 문법 요소와 함께 공부하도록 편성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성취 기준이 7학년에 제시되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어근과 접사는 8학년에서 ‘국어 단어 형성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처럼 다루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영이가 철수를 때렸다.’와 ‘영이가 철수에게 맞았다.’가 왜 능동과 피동의 관계가 아닌지 설명하기 어렵고(표현 의도로만 본다면 분명히 능동과 피동의 관계임.), ‘능동’과 ‘주동’의 개념을 피하면서 피동과 사동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민현식(2007)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1. ‘문법’이란 용어 문제

앞에서도 살폈듯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역 명칭이 ‘문법’으로 바뀌었

다. 4차 교육과정시기에 ‘언어’라는 명칭으로 교육과정에 처음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5차, 6차 교육과정시기까지 이어지다가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지식’이란 좀 해괴한 용어로 명명 되게 된다.

이렇게 바뀐 논리는 ‘언어’가 ‘국어’의 상위 개념어인데 어떻게 국어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느냐는 논리인데,¹⁹⁾ 이런 논리라면 ‘문학’ 영역도 마찬가지로 ‘문학’이 추상적인 상위어이니까 ‘문학’이라는 명칭을 국어과에서 쓰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유념하여야 할 것은 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국어’라는 용어는 한 교과목의 명칭이지 이미 ‘한국어’를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라는 것이다.²⁰⁾

4차 교육과정을 만들 때에 참고가 된 교육과정 중에 뉴욕 주의 교육과정이 있다.²¹⁾ 뉴욕 주 교육과정에서 영어과의 교과목 명칭은 ‘English Language Arts’로 되어 있고 그 영역 구분을 ‘reading, listening and speaking, composition, language, literature’로 구분하고 있다. 4차 교육과정 시기의 ‘언어’라는 구분은 이 ‘language’에 해당되는 용어로 이미 외국에서도 사용된 전력이 있는 용어이다.

개념상 혼란을 일어나 ‘국어지식’을 바꿔야 하는 입장에서 ‘문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영역의 명칭을 ‘문법’으로 바꾸고 문법의 내용 요소는 전통적인 문법에 속한 내용을 대폭 약화시킨 데에 있다.

19) 최미숙 외(2009) 참조.

20) 그 동안 국어과의 ‘언어’ 영역이나 고등학교의 문법 교과서에서 다루어온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언어’ 영역의 ‘언어’는 ‘소통 매체로서의 언어’이다.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언어에는 음성언어, 문자언어, 영상언어, 통신언어 등이 포함 되는 의미가 넓은 용어이다. 요즈음은 언어의 기원을 신이 내려 주신 선물이나 사람만이 가진 선천적인 능력으로 보기 보다는 진화에 의하여 적응과 선택을 거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주목 받고 있다. Pinker(1994), Kenneally(2007) 참조. 진화에 의한 적응과 선택에 의하여 소통 매체로서의 언어는 범위를 넓히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21) 손영애(1984)에는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여러 나라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중에 뉴욕 주 교육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앞에서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의 내용을 일별하였지만 고등학교 ‘문법’ 교과목은 그것이 과연 문법 과목이란 이름으로 불리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고등학교 문법 교육과정의 개괄적인 내용은 (2)와 같다.

(2) 1) 국어와 얹

(1) 언어의 본질 가. 언어와 인간
나. 언어의 특성

(2) 국어의 구조 가. 음운
나. 단어
다. 문장
라. 담화
마. 의미

2) 국어와 얹

(1) 국어와 규범 가. 정확한 발음
나. 올바른 단어 사용
다. 좋은 문장 표현
라. 효과적인 담화 구성

(2) 국어와 생활 가. 일상 언어
나. 예술 언어
다. 매체 언어
라. 전문어

3) 국어와 열²²⁾

(1) 국어의 변천 가. 국어가 걸어온 길
나. 한글의 창제와 문자 생활
다. 선인들의 국어 생활

(2) 국어의 미래 가. 통일 시대의 국어
나. 세계 속의 국어

22) 문법 교과서의 교육과정에 ‘열’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기문 (2008) “열‘에 대하여’에서는 ‘國語學者들, 특히 國語史 學者들은 이 말을 즐겨 쓰지 않았 습니다. 저도 이 말을 쓴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처럼 언급하고 이 말이 ‘쓸게’에 해당되 는 북부방언으로 남부방언의 ‘쓸게’에 자리를 내주고 소멸된 말임을 밝히고 있다.

다. 국어와 인접 분야

(2)에서 전통적인 문법에 해당되는 국어의 구조는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 잡다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교과목 명칭으로서는 아무래도 ‘문법’보다는 ‘국어 생활’이나 ‘언어’와 같은 명칭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문법’이라는 용어와 ‘학교 문법’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사용될지 궁금하다.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言語事項’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면서도 ‘언어’와 ‘문법’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東京書籍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언어’와 ‘문법’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코너名으로 사용하고 있다.²³⁾

2. 내용의 타당성 문제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정된 문법 교육의 내용 요소가 학교 문법론의 학문적인 내용 체계보다는 언어 사용의 실재를 우선시하다보니 성취기준의 선정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중등학교에서 교육하도록 한 성취 기준의 타당성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중등학교에서 가르칠 어떤 내용 요소를 선정한다면 분명한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문법’ 영역의 궁극적인 학습 목표가 있고 그에 맞는 내용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 내용을 선정하였는지 충분한 증거와 논리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가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문법 교육을 독립적인 체계로 하자고 고집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리이고 이미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이런 방향에서 많이 벗어나 있

23) 東京書籍(2006), 새로운 國語 1,2,3. 여기에서는 (7)에서 알 수 있듯 ‘문법’이란 용어를 어휘까지 제외한 좁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여러 문법 현상에서 선택적으로 국어 생활에 유용한 사항을 발췌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방향이 대안으로 모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내용 요소는 이러한 내용의 타당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현식(2007)에서 지적한 국어 규범의 문제는 국어 생활에 매우 유용한 문제이다. 맞춤법이 원리와 표준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국어 생활의 기본 능력이 된다. 그런데 위에서 살폈듯이 문법 영역 성취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다.²⁴⁾ 표준어와 맞춤법은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내용으로 ‘매체 언어’(7학년)나 ‘남북한 언어의 차이’(8학년) 등등 여러 내용을 이런 바탕 없이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음운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운 부분의 성취 기준이 1학년, 9학년, 10 학년에 하나씩 설정되어 있다. 발음 문제는 구체적인 모어 습득의 초기에서부터 중시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국어의 음운 체계 알기’(9학년), ‘국어의 음운 규칙 알기’(10학년)처럼 한 학년에서만 학습하면 학습하기도 벅찰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음운 체계는 음운 규칙을 이해하여 바른 발음을 알기 위해서 학습할 때에 효율적이다. 여러 구체적인 음운 변동 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학년별로 분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이외에 국어 문법에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의 높임 표현은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나 내국인의 언어 사용에서나 흔히 혼동되는 언어 현상이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겪는 국어의 한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높임 표현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에 ‘국어의 높임법을 안다.’라는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고 중등학교에서는 학

24) 초등학교 1,2학년에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나 ‘소리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한다.’ 같은 내용이 있으나 이를 본격적인 맞춤법이나 표준어 학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습 내용이 없다. 초등학교 4학년의 학습으로 복잡한 주체 높임법이나 상대 높임법, 그리고 혼적으로 남아 있는 어휘에 의한 객체 높임법의 쓰임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국어는 교착어로 많은 어미가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미를 학습하는 성취기준도 없다. 9학년에 ‘문장의 짜임새를 설명한다.’라는 성취기준이 있으나 어미의 용법은 짜임새를 아는 것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다. 어미에 따라 이어지는 문장이나 안기는 문장의 전후 호응 관계에 많은 제약이 있고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성인에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조사의 쓰임도 마찬가지이다. ‘이/가’나 ‘을/를’의 쓰임이나 ‘마저, 조차, 까지’ 같은 구체적인 보조사들의 미묘한 쓰임을 아는 것이 국어 능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많은 조사들에 의하여 그 의미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 ‘부자 아들’은 ‘부자의 아들’과 다르다. 그런데 이 助詞를 다루는 내용은 7학년에서 품사 공부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당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방안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의 해결방법으로 우리는 Weaver(1996:104ff)에서 논의한 방법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학생이나 성인들의 담화나 글에 나타난 문법적인 오류 調査를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이나 성인들의 언어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조사하여 빈도가 높은 것들을 중등학교의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이고 이런 내용을 선정하면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대학생이나 성인들의 담화나 글에 어떤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Weaver(1996)에서는 영어에서 이런 調査 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문법 교육

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3)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3) 1. 주어, 서술어, 문장, 절, 구의 개념과 그의 실현 가르치기
 2. 문장의 연결과 문장의 생성을 통한 문체 가르치기
 3. 문장 성분의 조작에 의한 문장 의미와 문체의 차이 가르치기
 4. 방언에 대해 가르치기
 5. 구두점 등 규범 가르치기

국어에서도 신문의 매체 언어에서 나타나는 혼한 오류로 왕문용(1999)에서는 (4)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 내용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4) • 조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 명사나 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 주어 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성취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듯하다.

3. 통사론 내용의 비중 문제

문법 영역에서 선정한 내용 중 통사론 영역의 비중이 문제된다. 국어의 문법 교육이 국어의 ‘구조와 체계’ 문제를 주로 다루는 영역이라면 통사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야 할 것이다.

중등학교에서 교육하도록 한 통사론의 내용은 ‘사동 피동’과 ‘문장의 짜임

새' 뿐이다.²⁵⁾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인 문법 교육은 중등학교에서나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중등학교에서 통사론 영역의 문법 교육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10 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열하여 나열하는 교육과정의 체계가 우선 문제일 것이다. 문법 교육과정을 학교 급별로 분리하여 만들든지, 아니면 중등학교에서 반복하는 체계로 만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통사론의 비중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7차 교육과정시기부터이다. 6차 교육과정 시기의 중학교 국정 교과서에 실린 문법 영역의 내용은 (5)와 같았다.

- (5) 1학년 1학기: 4. 표준어와 표준 발음, 13. 단어들의 의미관계
2학기: 6. 단어의 갈래, 12. 단어의 형성
- 2학년 1학기: 3. 음운의 변동, 11. 용언의 활용
2학기: 4. 문장의 형성, 10. 문장의 결합
- 3학년 1학기: 3. 문법 기능(1), 9. 문법 기능(2)
2학기: 3. 이야기, 9. 의미 표현

앞서 살핀 Weaver(1996)에서 선정한 교육 내용이나 일본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계와 비교하여 보아도 통사론 부문의 위축이 확인된다. 위의 (3)에서 Weaver(1996)가 선정한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항목이 통사론 영역이었다.

일본의 學習指導要領에서는 일본어 교육이 내용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로 나누고 별도로 言語事項의 항목을 두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1학년과 2,

25) 초등학교 내용까지 포함하면 단순히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전체 기준 중 8개의 성취기준이 통사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통사론은 피상적인 수준으로 여기에서는 중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다룬다.

3학년에서 설정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6)과 같다.²⁶⁾

(6) <1학년>

- 말의 속도와 음량, 어조와 질문 방법
- 어구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 事象이나 행위 등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구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어휘에 관심을 가짐
- 담화나 글에서 단락의 역할과 문장과 문장의 접속관계
- 단어의 종류, 지시어와 접속어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어구
-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차이

<2, 3학년>

- 음성의 작용과 구조
- 관용구, 유의어와 반의어, 동음어와 다의어
-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구, 어감에 따른 어휘 사용
- 상대와 목적에 따른 담화나 글의 형태랑 전개의 차이
- 문장 성분의 순서와 호응, 문장의 구조
- 단어의 活用, 조사와 助動詞
- 표준어(共通語)와 방언의 역할, 높임 표현(敬語)

1학년에서는 6개 항목 중에서 어조, 문장과 문장의 접속관계, 접속어 등 적어도 세 항목이 통사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2, 3학년에서는 전체 7개 항목 중에서 문장 성분의 순서와 호응, 문장의 구조, 단어의 活用, 조사와 助動詞와 높임 표현 등 적어도 3개 항목이 통사론 영역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찬된 東京書籍의 교과서에서 단원 구성의 예를 보이면 (7)과 같다.

(7) 1학년 1단원 언어 탐구 -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

문법의 창 - 문법과 언어의 단위

2단원 언어 탐구 - 단어의 의미와 문맥 (다의어)

26) 2002년(평성 14년)에 공포한 내용임. 2, 3학년의 내용은 동일함.

- 3단원 문법의 창 - 문장성분, 連文節
- 4단원 언어 탐구 - 일본어, 漢語, 외래어
- 5단원 문법의 창 - 접속사, 지시어
- 7단원 문법의 창 - 단어의 분류
- 2학년 1단원 언어 탐구 - 방언과 공통어
- 문법의 창 - 용언의 활용
- 2단원 언어 탐구 - 유의어, 반의어
- 3단원 문법의 창 - 명사
- 4단원 언어 탐구 - 단어의 구조
- 5단원 문법의 창 - 문법 부사, 連體詞
- 7단원 문법의 창 - 조사
- 3학년 1단원 언어 탐구 - 언어의 변화
- 문법의 창 - 조동사
- 2단원 언어 탐구 - 관용어
- 3단원 문법의 창 - 높임 표현
- 4단원 언어 탐구 - 단어와 단어의 배열
- 5단원 문법의 창 - 애매한 문장
- 7단원 문법의 창 - 글, 담화(文章)의 논리구조

이 교과서에서는 전체 단원의 뒤쪽에 별도로 문법 영역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문법 해설’란을 두어 자세히 첨부 설명하고 있다.²⁷⁾ ‘문법’이라는 용어를 전통적인 문법에 국한하고 다른 경우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도 눈에 띈다.

1학년의 단원의 경우 전체 6단원 중에서 1단원, 3단원, 5단원 곧 3개 단원이 통사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원이다. 2학년의 경우도 용언의 활용, 連體詞, 조사 등이 그렇고 3학년에서는 조동사, 높임 표현, 단어의 배열 등이 통사론과 관련된다. 전반적으로 통사론과 관련되는 단원이 절반 정도이다.

우리의 경우 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통사론 영역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을

27) 學校圖書나 光村圖書 등 일본의 국어 교과서는 문법 영역을 앞의 단원에서 ‘문법의 학습’, ‘문법의 광장’처럼 편성하고 다시 뒤에 체계적으로 설명 기술하는 란을 두고 있다.

보이고 있다. 통사론은 문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다른 부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항목을 줄이고 성인들의 언어 사용의 오류를 바탕으로 문법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면 통사론 영역의 위축 문제는 좀 나아질 수 있겠다.

4. 교과서의 문법 영역에 나타난 문제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교육의 내용 요소를 임의적으로 한 학년에 3에서 5가지 요소씩 선정하여 배열하였음은 이미 밝혔다. 그런데 이 교육내용의 실질적인 교육 자료인 교과서에서는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으로 반영되고 있다.

교과서 편찬에서 문법 교육이 약화되고 현장에서 교과서를 선택하는 교사들이 형식적으로 문법을 다룬 교재를 선택한다면 교육 현장에서의 문법 교육의 앞날은 不問可知한 상황이 될 것이다.

교과서의 문법 영역에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두드러진 몇 문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의 교과서 체제는 ‘국어’와 ‘생활 국어’로 국어 교재가 둘로 나뉜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주로 읽기와 문학 영역은 ‘국어’에서 나머지 문법,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은 ‘생활 국어’에서 다루도록 교과서를 편찬하였다.²⁸⁾ 이를 이어 받아 현재의 교과서도 국어과를 ‘국어’와 ‘생활 국어’로 나누어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결과 문법을 다루는 방법이 교과서마다 달라서 ‘국어’와 ‘생활 국어’에서 다 다른 교과서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만 문법 내용을 다룬 교과서도 있다. 이런 교재에 의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문법 교육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생활 국어’에서만 문법 내용을 다룬 교과서는 ‘생활 국어’가 보조 자료로 인식

28) 이러한 체제는 문법 교육의 쇠퇴를 촉진한 면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국어’ 교과서를 위주로 교육하고 ‘생활 국어’는 보조 교재처럼 다루면서 ‘문법 영역’의 교육은 쇠퇴하게 되는 것이다.

되는 현실에서 문법 교육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7학년의 문법에서 성취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섯이다. 우리가 조사한 교과서 10 종에서 5가지 성취 기준을 다루는 방법은 50 예가 된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 중에서 16 예가 ‘국어’나 ‘생활 국어’ 어느 한쪽에서만 문법 단원을 편성하고 있다. 비율로 보아서는 3할 정도이다. 특히 ‘생활 국어’에만 편성된 것도 5 예로 그 비율은 1할을 차지한다.

이런 면에서 문법 교육의 내용은 지금과 같은 ‘국어’와 ‘생활 국어’로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반드시 ‘국어’에 편성하여 다루고 ‘생활 국어’에서 적용하는 학습을 하여야 할 것이다. 3할이나 되는 교과서가 우선 교과서의 편성에서부터 문법 영역을 홀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로 각 교과서에서 문법 단원을 구성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어떤 문법 교육이 제대로 된 문법 교육이냐는 논제는 여기에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논제이지만 문법 단원이 피상적인 수준으로 구색만 갖춘 문법 단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역간 통합으로 단원을 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문법 교육이 비효율적이라는 논의도 많다. Weaver(1966) 등에서도 이런 논의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자신의 작문을 직접 편집하고 교정하는 맥락에서 문법 능력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습득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가상적인 이론 위주의 학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기 자신의 언어 문제’ 해결에서 문법 능력의 습득이 용이함을 말한 것이지 문법 교육을 읽기나 쓰기 교육의 부수 영역으로 본 것은 아니다.²⁹⁾

교과서 단원의 전개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를 좀

2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근본적으로 사회 구성주의적인 교육방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전통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둔 방법과 뚜렷하게 대조 되고 있다. 이 방법이 문법을 부수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더 살펴보기로 한다. 교과서에서 ‘매체 언어’와 ‘관용 표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각각 ‘교과서1’과 ‘교과서2’에서 개괄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8)과 같다.

(8) ㄱ. 대단원 명 : 매체와 함께

학습 목표 : 언어가 우리 삶에서 하는 역할을 이해한다.

매체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다름을 이해한다.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한다.

소단원명 (1)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헬렌 켈러 자서전

‘지식마당’ 매체란 : 4행으로 설명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생활의 변화 파악하기
; 7행으로 설명

어휘력 기르기 : 한 쪽으로 배열

ㄴ. 대단원 명 : 선인들의 삶과 언어

학습 목표 : 문학 작품에 나온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하고 작품을 읽을 수 있다.

재담에 나타난 재미있는 말의 발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소단원명 : 관용 표현의 이해

‘함께 나누기’ 관용 표현에 대한 설명과 예 : 간단한 줄긋기 활동

‘속담에 대하여’ 설명문 읽기(이기문)

‘매체 언어’에서 다루도록 한 교육과정의 내용은 ‘언어의 기능과 특성 이해하기,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 비교하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 사용하기’인데 교과서에 이를 설명한 내용은 한쪽도 안 된다. (ㄱ)에서는 이렇게 영역간 통합으로 ‘국어’ 단원을 편성하고 ‘생활 국어’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아서 결국은 ‘매체 언어’ 보다는 ‘효과적인 언어생활’만을 다룬 셈이 되었다. ‘언어의 기능’ 파악은 언어생활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ㄴ)에서 다루고 있는 ‘관용 표현’에서 다루도록 한 내용 요소의 예로는 교육과정에서 ‘속담, 명언, 관용어 등의 개념 이해하기, 관용 표현 사용이 효과를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관용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 이해하기’ 등이다. 그런데 (ㄴ)에서는 이런 내용은 간략히 부수적으로 들고 있고 설명문 읽기를 주로 하고 있다. 관용 표현에서 관용어, 명언 등은 거의 다루지 않고 ‘속담에 대하여’라는 제재를 넣고 있다. 독립 소단원으로 문법을 다루었지만 다루어지는 내용은 영역간 통합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렇게 문법 영역을 영역간 통합 단원으로 편성하면 문법 학습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학습이 되기 쉽다. 어느 부분에서 일부를 소개하든지, 학습 활동으로 다루든지, 어떤 경우든 문법 영역의 영역간 통합 학습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학습이 된다. 문법 영역은 개념과 학습 내용이 체계적으로 분명하므로 이를 다른 영역에 부수적으로 가져다가 붙이면 제대로 학습 할 수 없을 것이다. 영역간 통합으로 문법 교육을 하더라도 ‘국어’에서는 독립 단원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충분히 설명, 전달하고 이 내용을 다른 영역과 통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³⁰⁾ 통합 학습은 문법 내용의 어떤 요소를 습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각 교과서에 나타나는 내용의 차이 문제이다. 4차 교육과정 시기에 그 동안 검인정이던 문법 교과서를 통일하여 국정 문법 교과서를 만든 이유는 교과서마다 같은 범주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겪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³¹⁾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새로이 연구되기 시작한 사회언어학, 의미론, 화용론 등의 내용이 첨가되면서 각 교과서에서 같은 성취 기준을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 한 예로 ‘매체 언어’

30) 일본 국어 교과서들은 단원에서는 문법을 분리하여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고 뒷부분에서는 ‘문법 해설’(東京書籍), ‘문법의 학습’(學校圖書), ‘문법’(光村圖書) 등으로 자세히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편성을 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31) 2차나 3차 교육과정 시기의 혼란의 예에 대해서는 이용주(1979)나 이길록(1981) 등이 참고 된다.

와 ‘명언’을 들 수 있다. ‘매체 언어’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면서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게까지 되었지만 이 매체 언어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의 일이다. 매체 언어를 다루면서 매체 언어의 갈래를 같이 다루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교과서도 있지만 갈래를 소개한 몇 종류를 보면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다. ‘매체 언어’와 ‘명언’에 대한 설명이 다르게 나타난 예를 살펴보면 (9)와 같다.

(9) ㄱ. (가) 매체 언어 : 구분 안함.(교과서 3)

(나) 매체 언어 : 음성, 문자 언어

시청각, 영상 매체 언어

인터넷 정보 통신 매체 언어(교과서 4)

(다) 매체 언어 : 문자 언어 등장 이전

문자

전자 매체

디지털 매체(교과서 7)

(라) 매체언어 :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

신문, 라디오, 통신(교과서 9)

ㄴ. (가)명언 : “명언은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을 말한다. 명언은 관용어나 속담과 달리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교과서3)

(나)명언 : “속담과 비슷하지만 민간에 전래 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인지, 어느 책에 실려 있는 말인지가 알려져 있는 관용표현”(교과서 4)

(다)명언 : “사리에 꼭 들어맞는 훌륭한 말, 유명인이 한 말로 널리 알려진 말”(교과서 7)

(라)명언 : 명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관용어, 속담, 고사성어, 격언’으로 설명.(교과서 9)

(ㄱ)에서 보면 매체 언어의 유형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구분도 모호하다. ‘시청각’ 매체와 ‘인터넷 정보통신’ 매체가 구분되는 것인지, 전자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본질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 등이 혼란스럽다. 문자 언

어에서는 인쇄 매체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필이 중요하여 ‘글씨 쓰기’의 중요함이 다루어져야 체계적이라고 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다.

명언도 속담, 관용어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격언이나 금언과는 어떻게 다른지 학술적으로 분명히 정의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교과서마다 (ㄴ)처럼 설명이 다르게 된다. 이를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염려된다.

바람직한 문법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상이한 내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현장에서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문법 교육의 현실은 개정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찬되기 시작한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그 대강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과 문법 교육의 방향은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새로운 교과서가 편찬되는 와중에 있어 지금 문법 교육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문법 교육이 고착화할 염려가 있다.

개정 교육과정과 새로이 편찬되기 시작한 교과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중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철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문법’이라는 영역 명칭이 해결되어야 한다. 기존의 ‘언어’ 영역, ‘국어 지식’ 영역에서 ‘문법’ 영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현재의 학습 요소로 보아서는 ‘문법’이라는 용어를 너무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해당되는 용어에 맞게 내용 요소를 선정하던지 아니면 내용 요소에 맞게 용어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학습 요소의 타당성 문제이다. 현재의 학습 요소는 나름대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선정한 것일지라도 그 요소를 학습 내용으로 선정해야 할 타당한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

선정 요소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논란되는데 내용 선정에는 반드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론 중의 하나는 일반 성인이나 대학생들의 담화나 글에 나타나는 오류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가장 심각한 오류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오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구문 능력에서도 많은 오류가 나타나듯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구문 능력은 선천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문법 교육에서 통사론 영역의 축소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 통사론은 흥미가 없더라도 문법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넷째로 교과서의 문법 영역은 제대로 편성되어야 한다. ‘국어’나 ‘생활 국어’의 어느 한 곳에서만 다룬다든지, 영역간 통합 단원으로 학습 활동이나 일부 학습란에서 다루면 제대로 문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문법 교육을 통합적으로, 맥락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문법 교육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영역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문법 단원은 매우 소략히 편성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일반적으로 문법은 어렵고, 따분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에 편승하여 쉬운 교과서를 만들려는 경향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단원을 구성하는 경우에 문법 영역은 부스러지고 단편화된다. 쉬운 교과서를 만들고 이런 것을 많이 선택하여 학습하는 담합을 막기 위하여 문법 영역에서 교과서에 실릴 내용을 규정하고, 잘 만들어진 교과서를 추천하는 일을 어디선가 확실하게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문헌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 남가영(2007). 문법 교육론 자리 매김의 두 방향. 국어교육연구 19, 469-506, 서울 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06).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문법 교육의 과제. 문법 교육 4, 1-27, 한국문법교육학회.
- 민현식(2007). 문법 교육의 반성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 연구 19, 287-35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박갑수(2006).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성찰. 서울대출판부.
- 박덕유(2005). 문법 교육의 발전 방향. 국어교육연구 2, 77-98,, 한국어교육학회.
- 박영목 · 한철우 · 윤희원(2003). 국어교육학 원론 제2판. 박이정.
- 손영애(1984).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국제 동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신명선(2008).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31, 357-393, 국어교육학회.
- 왕문용(1999). 신문의 매체언어. 선청어문 27, 561-58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왕문용(2005). 문법교육 변천사. 국어교육연구 2, 47-76, 한국어교육학회.
- 이관규(2002). 제7차 문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문법 내용적 특징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 연구 14, 321-354, 국어교육학회.
- 이기문(2008). ‘얼’에 대하여. 이송녕(편). 현대국어의 개척자. 태학사.
- 이길록(1981). 국어문법 연구. 일신사.
- 이용주(1979). 불규칙 동사 설정에 대하여. 선청어문 10, 5-2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충우(2006). 국어 문법의 교육과 연구. 역락.
- 정준섭(1994). 국어과 교육과정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경원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숙 외(2009). 국어 교육의 이해. (주)사회평론.
- 최지현 외(2009).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역락.

- 홍정원(2008).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문법 교육 연구. 강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enneally, C.(2007). *The first word*. William Morris Agency Inc.(전오영 옮김(2009). 언어의 진화. 알마.)
- Pinker, S.(1994). *Language instinct*.(김한영외 옮김(2004). 언어본능. 도서 출판 소소.)
- Weaver, C.(1996). *Teaching grammar in context*. Boynton/Cook Publishers.

이 논문은 2009. 12. 31.에 접수된 논문으로 2010년 01. 21.에 심사를 완료하고 2010. 02. 05.에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됨.

<Abstract>

The Retrospective Study of Teaching Grammar

Wang, Moon-yong

I analyzed korean grammar in the curriculum and the textbook of korean language art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s.

In the curriculum, korean language arts are divided 6 fields. These are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grammar and literature.

The term 'grammar' in the curriculum is improper term. The scope and sequence of 'grammar' is incorrect. We must select the elements in 'grammar' curriculum by concrete criteria. A criteria is 'our most frequency errors in the text'. I suggest what aspects of grammar we might focus on, as we guide our students in becoming more effective communicator.

The materials in the textbook of teaching grammar is weak. Teaching grammar in integrated units of textbook between grammar and other fields don't idealize scope of what aspects of grammar may be taught across the years through middle school.

<Key words> teaching grammar(문법 교육), korean grammar in the curriculum(문법 교육과정), scope and sequence of school grammar(학교문법의 범위와 체계), Retrospective Study of Teaching Grammar(문법 교육에 대한 성찰)